

一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할단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이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제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께  
 二 왔사오니 저는 병어리귀신이 들려서 어더서든지 귀신이 저를 잡으면 곧 거꾸러져 침을 흘리며 이를 갈  
 三 아 침골이 된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더러 내어쫓아달라 하였더니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하거늘  
 四 예수 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지 않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 
 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데리고 와 예수께 보이며 귀신이 곧 그 아이를 크게 오그라드리니  
 六 땅에 엎드려져 죽으며 침을 흘리지늘 예수께서 그 아이더러 물으시되 병은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니  
 七 대답하되 어덜 때부터 그러하옵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사오니 오직 선생님이 후  
 八 무었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거늘 예수 께 이라사대 할 수 있거든이 무  
 九 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  
 一〇 가 믿사오니 내 믿음이 부족함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들이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  
 一一 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와 귀머거리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 
 一二 들어나가라 하시니 사귀가 소리치르며 아이를 심히 오그라드리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매  
 一三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거늘 오직 예수 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드디어 일어서더라 집에  
 一四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문자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 
 一五 예수 께 이라사대 기도 아니하여서는 이런 일을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이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행  
 一六 하여 지날새 예수 께 아무 사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라 제자들에게 보여 가라사대 인자가 사람의 손에 내어  
 一七 주어 죽임을 당하고 죽인 자 삼일 만에 다시 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물기를

一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새 제자들더러 물어 가라사대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다툼  
 二 것이 무엇이나 제자들이 잠잠함은 저희가 노중에서 서로 다툼 것이 누가 크노 함이러니 예수 께 앉으사  
 三 열 두 제자를 불러서 이라사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는 못사람의 끝이 될 것이요 못사람을 섬기는 이가  
 四 될 것이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저희더러 이라사대 누구든지  
 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  
 六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 
 七 보니 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사귀를 내어쫓거늘 저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 연고로 우리가 금하였나  
 八 이다 예수 께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대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정욕히 나를 비방할 이가  
 九 없나니 우리를 거역지 않는 사람은 곧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 대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누구  
 一〇 든지 너희게 물한 잔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응함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 
 一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범죄케 하는 자는 차라리 큰 돌매를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리  
 一二 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신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 있어 지옥 끼치지  
 一三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멸 영생에 들어가  
 一四 는 것이 두 발이 있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 
 一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이 있어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기는 벌레도  
 一六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니라 대개 각 사람을 반드시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니 소금이 좋은 것이  
 一七 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써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도 소금을 치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더라